



질병없는 강진군민의 " " " " " " " " " "

金光洙 전남 강진군 보건소장



지난 60년대,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일본뇌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만연될 때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설립한 것이 보건소였다.

몇명 안되는 인원과 부족한 장비로 62년에 출발한 강진보건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인원 및 최신의료기자재 보강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건강관

단합된 모습에 감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자랑한다.

『제가 처음 보건직에 입사했던 62년도에는 보건소라는 곳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상태에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원1명, 보건 의사1명, 행정요원1명등 몇명 안되는 인원과 비좁은 사무실에서 출발 했었지요. 그당시 이곳 남해안 지역에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콜레라등이 만연 되고 있어 전직원들이 너나할것 없이 1인다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기초적인 교육만 받고 현지에 출장 검사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몇명이서 담당 했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었지요. 솔직히

『저희 강진군 보건소는 결핵, 기생충 관리, 성인병등 모든 기초적인 건강검사를 농한기인 3월까지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100% 완료 했습니다』농사를 天職으로 알고 있는 이곳 군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알고 있어 모든 건강사업을 조기에 병행 실시 하여 큰 호응도를 얻었다고 강진군 보건소의 이색적인 사업현황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김소장은 『강진군민 78,357명의 건강관리에 대해 80여명의 보건소 전직원들이 밤낮없이 일심동체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최대의 강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이곳에 부임한 후 부하직원들의

건강한 모습이 환히 웃는다

을 찾아(대한민국 보건소 공채 1기)

리를 책임지는 위치를 확보했다.

62년 강진보건소 창설당시의 정예 인원이었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8번지에 소재 한 강진군보건소장인 金光洙(45세)씨.

이번호 “숨은일꾼찾아서”의 주인공으로 이나라의 보건소의 발자취와 더불어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생활상을 소개한다.

말해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라 모든 질병의 초기예방에 중점을 두는 보건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젊은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서 오늘날 보건소의 발전에 자신의 미력한 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데에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金소장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기자는 현재와 과거의 보건소를 비교, 그의 젊은날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다.

『올해는 강진군 보건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해지요. 2억7천여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아 보건소의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건물이 비좁아 많은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부진했던 점

이 항상 괴로웠다는 그는 이제 군민 78,357명의 건강한 웃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다고 순박한 시골풍의 인상을 심어준다.

『소장님은 모든일에 대하여 하면된다 는 신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항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늘 강조하시지요』옆에 있던 윤돈하 보건행정계장이 金소장의 일에 대한 애착심과 강한 추진력을 이야기 해 준다.

부인 유형자씨(39세)와 1남1녀의 가정으로 튼튼히 서예를 익혀 항상 인격을 수양한다는 그는 지난해 제14회 보건의달 행사 시 보사부장관표창을 수상받은 바 있는 청렴결백한 전통적인 선비집안 자손이기도-

오후에 주민사업이 있어 현지에 간다는 그는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 또다시 자신의 일에 도전을 한다.

金光洙강진군보건소장. 그의 말대로 강진군민 78,357명의 건강한 웃음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음을 기자는 느끼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강진군보건소를 나왔다

(오일민 글)